

## 비비엔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 연구

방 수 란<sup>†</sup>

경원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강사

### A Study on Vivienne Westwood Design

Soo-Ran Bang<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Coll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istorical costume style and painting on Vivienne Westwood design.

For this purpose, the costume style after 16C and the rococo painting of 18C are researched.

And through Westwood's recent designs, the external form and internal symbol are compa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From Renaissance, Rococo, Crinoline, Bustle, S style were showed on Westwood design.
  2. In external method, historical costume styles were expressed by silhouette, detail, costume item, textile and various cuttings.
  3. In the case of painting, it focused on Rococo painting of 18C. Costumes in painting were realized or painting itself were used for textile.
  4. Most of her design was cut in the round rather than in the flat, bold cutting and slash were employed.
  5. These works are symbolizing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future,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orthodox style, containing ridicule to the authority and a challenge to society as well as sex.
- These results let us know that Westwood is versatile to transform the history and harmonize the tradition and 20C Fashion successfully. (*Korean J Human Ecology 2(1):129~141, 1999*)

KEY WORDS : historical costume, painting, Westwood, tradition, challenge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College.,  
san 65, Bokjung-dong, Soojong-gu, Songnam-shi, Kyonggi-do, 461-702, Korea  
Tel : 0342-750-8728, Fax : 0342-750-8729  
E-mail : kwc@kyungwon-c.ac.kr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의의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보수적인 파리패션계에 영국 디자이너들이 대거 등용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디자이너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파리컬렉션에 차츰 영국을 비롯해 벨기에, 미국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인에게 배타적이었던 오프 푸뛰르 분야에서는 얼마전 크리스찬 디오르에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가, 그리고 지방시에 알렉산더 맥퀸이 고용되면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쇼를 진행하고 있는 비비엔 웨스트우드와 더불어 새로운 영국 파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영국 디자이너들이 파리패션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파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때문인데 그 배경은 2가지 요소와 연관된다. 즉 첫째는 국가가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것과 둘째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영국의 명성 높은 예술과 디자인 교육시스템이다. 80년대 초까지 재능있는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세계 각국으로 부터 바이어들을 끌어들이고 70년대의 패션세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Women's Wear Daily(WWD)지는 런던을 아이디어가 넘치는 풍부한 패션시장이라고 묘사했으며 이탈리아의 Elio Fiorucci (1988)는 모든 이탈리아의 스틸리스트들은 런던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영국의 문화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국패션을 이끌어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의심의 여지없이 70년대 말은 Jean Muir, Zandra Rhodes, Bruce Oldfield, Wendy Dagworthy, Roland Klein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Catherine 1988). 그리고 70년대의 패션을 주도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영국패션의 유력한 인물인 Vivienne Westwood를 들 수 있다(Peter 1991). 웨스트우드는 핑크스타일의 창조자로 유명하며 83년부터 작품들을 파리에서 선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그녀의 역할은 현재의 다른 디자이너들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에 의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Florence, Yvonne 1986).

웨스트우드의 옷들은 이상함과 특이함으로 종종 사람

들에게 충격을 주곤 하는데, 비록 그녀의 옷들이 입을 수 없는 것들로 혹평을 받고는 있지만 그녀의 디자인들은 널리 세계적으로 카피되고 있으며 그녀의 쇼는 항상 다양한 아이디어로 가득차 있다(Georgina O'Hara 1998). 그리하여 그녀의 유명한 '해적(Pirates)컬렉션'은 Victoria & Albert 박물관의 현대의상코너에 전시되어 있으며 85년의 파리컬렉션은 WWD에 실리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Catherine 1988).

또한 1991년에는 영국으로 부터 '그해의 디자이너상'을 받기도 하였다(Harriet 1997). 그러므로 웨스트우드를 그녀 시대의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들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Georgina O'Hara 1998).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패션을 주도해 나가는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특히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그녀의 '해적'에 나타난 '신 낭만주의(New Romanticism)'와 그 이후의 컬렉션에 보여진 복식사적 요소들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비엔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를 근세이후 서양복식의 흐름 및 회화와 관련지어 작품에 나타난 복식의 역사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근세이후의 복식 스타일과 회화가 현대의 상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현재 유럽패션에 있어 가장 영향력있는 디자이너중 한 사람으로써 핑크패션을 창조하였고 앞서가는 아이디어들로 영국패션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한바 큰 비비엔 웨스트우드의 작품에 나타난 특성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16세기 이후의 서양복식의 특성과 18세기 회화를 대변하는 로코코 회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녀의 작품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그녀의 초기작품 특성인 핑크 스타일을 제외한 작품중에서도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한 1980년대 부터 최근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Collections, Dépeche Mode와 같은 패션잡지를 통해 전통적 요소가 표현된 작품에 한하여 수집하였다. 또한 비비엔 웨스트

우드 자신이 로코코 화가인 와토의 작품을 참조한다고 한것에 근거하여 미술사조 중에서도 18세기의 회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1991).

## II. 근세이후 서양복식과 회화

### 1. 서양복식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16세기 부터 17세기에 걸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전성기를 맞이 하였다. 유럽제국이 이탈리아의 인본주의나 예술양식을 받아 들일 수 있었던 것은 15세기말에 이르러 강력한 군주체제에 의해 국내평화가 유지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예가 부흥함에 따라 예술가들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理想化하도록 유도하였고 따라서 의상의 선과 색채에 있어서도 우아하고 조화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냈을 뿐아니라 보석, 자수, 화려한 직물, 레이스를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 하였다. 또한 스커트를 뻗치게 하는 파딩게일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어 코르셋과 함께 여자들의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를 확대 시킴으로써 인체의 선을 인공적으로 확대, 축소시키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 하였다(신상옥 1988).

17세기로 넘어가면서 화려한 직물의 산지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르네상스의 복식은 프랑스와 영국으로 패션의 중심지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은 패션의 중심이 그 당시의 국력에 따라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를 바로크(Baroque)시대라 하는데 그 양식은 조화와 균형이 파괴된데서 오는 부조화를 본질적 특색으로 갖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통일이나 조화없이 호화롭기만 한 양식이 성행하였는데 파리고외에 건립된 베르사이유(Versailles) 궁전은 이러한 시대양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크의 대표적 건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특징은 복식에도 나타나 거창한 가발이나 화려한 레이스, 넘쳐나는 리본 다발등이 남·녀복식 모두에 과도하게 사용되었는데, 지나친 장식과열현상은 인간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의상을 위한 의상이 되어 버린듯 한 느낌이 든다(정홍숙 1991).

루이 14세 시대의 종말과 함께 바로크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동안의 무거운 억압에서 풀려 나온듯 일제히 새로운 취미와 유행이 파리를 풍미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18세기를 대변하는 로코코(Rococo)시대의 개막인 것이다(이 일 1989). 그리하여 바로크시대의 거대하고 화려한 복식에서 로코코 스타일의 섬세하고 우아한 곡선미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바로크스타일이 건축양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비해 로코코는 장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아하고 섬세한 곡선이 경쾌한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식은 극도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는데 그 영향으로는 활발한 무역으로 인한 동양문화의 접촉과 루이 15세의 애인 '퐁빠두르(Pompadour)', 루이 16세의妃 '마리 앙투와네트(Marie Antoinette)' 같은 귀족계급의 취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앞가슴 깊숙히 파인 목둘레와 리본으로 덮인 스토퍼커, 페티코트의 플라운스, 소매의 앙가장, 레이스, 리본, 꽃줄 장식 등이 로코코 스타일을 대표하는 특징이었으며 무늬가 있는 옷감과 함께 쓰여져 복식사상 가장 아름다운 의상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귀족층의 극도의 사치는 결과적으로 프랑스혁명을 낳게 하였고, 혁명이후의 19세기에는 낭만주의 사상이 지배를 하게되었다. 고전을 동경하고 자연을 찬양하는 낭만적인 풍조는 문학뿐아니라 음악, 건축등 사회전반에 걸쳐 유행하게 되는데 의복에서도 18세기의 로코코스타일이 부분적으로 재현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로맨틱스타일(Romantic Style), 크리놀린스타일(Crinoline Style), 버슬스타일(Bustle Style), S자 스타일은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스타일들이라 하겠다(신상옥 1988).

이상과 같이 16세기 이후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대에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복식스타일과 함께 여성미와 복식미의 극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 2. 18세기 회화와 와토

비비엔 웨스트우드는 '나는 고전주의(16~18C 프랑스 고전주의) 사상속에 있는 양식을 풍자적으로 개작할 때 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영감을 전통적 스타일에서 얻었다(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1991). 고전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그녀는 회화

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화가 그 당시의 스타일을 반영해 주는 가장 좋은 표현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배경에서는 그중에서도 비비엔 웨스트우드의 컬렉션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18세기 회화와 이를 대표하는 화가인 와토(Jean A. Watteau 1684~1721)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가구라던가 실내장식에는 우아한 곡선이 등장하고 화사하고 경쾌한 의상이 귀족, 서민층을 가릴것 없이 젊은 여성들을 매료시켰다. 그리고 여성적인 우아함과 세련, 가냘픈, 교태등의 새로운 풍조가 한꺼번에 開化하는 이른바 로코코 시대가 열렸는데 부셰(Boucher), 와토, 프라고나르(Fragonard), 랑크레(Lancret)는 이러한 로코코 시대의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들이었다(Jean-Louis 1983). 그중에서도 와토는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새 시대의 취미와 유행을 대표하는 화가로 간주되고 있다(이 일 1989).

그는 18세기의 자유롭고 쾌활한 시대풍조를 회화에 반영시켜 전원에서 놀고 있는 귀족이나 궁정사람들의 섬세하고 우아한 풍속을 시적인 정감으로 표현하고 있다(이 준, 조인수 1990).

경쾌한 필촉, 포즈나 표정의 정확한 포착, 질감의 완벽한 표현, 색채의 아름다움 등은 와토 회화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그의 대표작 '사랑의 레슨(La leçon d'amour)'과 같이 당시 그가 가장 많이 그렸던 주제는 남녀의 사랑이었으며 이로인해 흔히 와토는 「사랑의 향연」의 화가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이 호칭은 와토 특유의 로코코적 세련과 우아함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이 일 1989).

그의 회화속에서는 특히 그당시 복식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와토가운'은 그로인해 생긴 대표적인 복식 용어라 할수 있다. 이것은 와토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18세기의 드레스 스타일에 붙여진 이름으로 목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의 깊은 등 주름이 특징이다(Georgina O'Hara 1998) (Fig 1).

이처럼 와토가 비록 18세기 프랑스 귀족들의 취미를 주로 다루긴 했지만 단순히 시대유행의 대표자라 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예술가였으며 오히려 그의 꿈과 이상이 로코코 양식의 유행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Gombrich, 최민(역) 1988).



Fig 1. L'enseigne de Gersaint,  
Jean A. Watteau, 1720.  
Watteau, p. 38

### III. 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

#### 1. 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

웨스트우드는 디자이너로서는 평범하지 않은 배경을 가졌다. 원래 초등학교 선생이 되기위한 교육을 받은 그녀는 부족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디자인 재능은 동업자인 말콤 맥클라렌(Malcolm McClaren)의 사업수단과 더불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Catherine 1988). 펑크 모드를 창조한 스티리스트이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녀는 거리의 반항적 스타일을 역사적인 복식이나 부족사회의 복식과 혼합하게끔 하였다(Harriet 1997). 어떤것이든 가능하다는 그녀의 사고방식은 캐시미어와 플라스틱의 믹싱과 같이 서로 다른 사물과 재료를 혼합하는 방법등을 보여준다(Catherine 1988).

그녀는 데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며 밀그림으로된 초안을 하지 않는다. 바로 소재를 다루며 body위에 그대로 드레이프 시키는 것이 그녀 옷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전통을 존중하며 또 과거에 대한 참고없이 어떤 혁신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나에게 있어 20세기 말엽에 우아해진다는 것은 과거의 악상(특색)이 남아 있는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웨스트우드는 전통적인 요소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1991).

즉 새로운 디자인을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웨스트우드 자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결코 개발되지 않은 생명력 같은 것이 있는 과거로부터 뭔가를 취하시오, 예를 들어 크리놀린 같은 것들... 그것에 포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독창적인 뭔가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와같은 과거의 특징이 웨스트우드의 복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파리에서 선보인 ‘해적 컬렉션’에서 부터이다(Fig 13). 프릴과 화려한 색상의 직물, 그리고 혈령한 실루엣으로 몇부린 18세기의 모습을 특징으로 하는 ‘해적’컬렉션은 신 낭만주의 움직임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그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게끔 하였다(Valerie 1991).

그 이후로 보여지는 1986년의 Mini-Crinoline, 1988년의 그리스 로마시대의 드레이퍼리로 장식된 옷, 와토와 프라코나르로부터 영감을 얻은 최근의 데생들도 과거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들이라 하겠다. 그녀는 이렇게 항상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함으로써 개혁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 브랜드의 로고역시 이런 창조적인 여정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즉 세계를 상징하는 구는 전통을 의미하며, 미래를 상징하는 위성은 가능성을 뜻하고 있다(Fig 22). 이처럼 웨스트우드는 전통적인 것 으로부터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1991).

## 2. Vivienne Westwood 작품의 특성

웨스트우드에게 있어 모든 아이디어의 원천은 언제나 과거이다. 그녀가 지금까지의 매시즌 컬렉션마다 보여준 파일럿(Pilot), 버슬(Bustle), 버팔로(Buffalo), 크리놀린(Crinoline), 영화의 여배우 같은 테마들은 모두가 과거의 것으로부터 발췌된 것들이다. 그녀는 “과거를 잊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 볼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은 역사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그녀는 현재의 패션은 바다이나 버렸지만 역사나 문화를 혼합시킴에 따라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들어 17세기와 20세기를 믹스시키는 등 이질적 것을 섞어 조화시키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Bertrand Russell의 「Orthodox는 지성의 무덤이다」라는 말이 그녀의 좌우명이었다고

한다. 사회의 rule이나 상식을 비판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지성이나 예술을 말살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녀는 패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임했는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점으로 사물을 바라보았다(가재창 1995). 다음의 외형적 특성에서는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외적특성들 중에서 과거의 특성이 나타난 작품들을 시대별 순서에 따라 알아 보았다.

### 1) 외형적 특성

웨스트우드에게 있어 섹스(SEX)는 빼 놓을 수 없는 테마이다. 그녀는 과거의 특성을 따오는데 있어서도 이 테마를 놓치지 않았다. Fig 3은 91, 92 A/W 파리컬렉션에 선보인 의상으로 스커트 위로 코드피스(Codpiece)가 보이고 있다. 원래 코드피스는 16세기에 남자바지의 앞 중심부분에 性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삼각형의 덮개로 Pad를 안에 넣어 부풀렸으며 바지의 부피가 커지자 가려지면서 점차 보이지않게 되었다(Fig 2). 웨스트우드는 이처럼 男性美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코드피스를 여성복에 장식함으로써 단순히 역사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각도에서의 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권위에 대한 조롱으로 섹스를 테마화하고 있다. 코드피스외에 16세기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던 슬래쉬(slash) 또한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중세 십자군의 군복에서 시작된 이 스타일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칼에 베어 찢어진 모습에서 유래되었는데 Fig 4는 슬래쉬가 과다하게 사용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Fig 5의 웨스트우드 작품은 이러한 슬래쉬를 이용한 것으로 몸판 뿐아니라 소매와 팬츠, 그리고 부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사선의 절개가 들어 갔으며 이것 또한 원래는 남성복에 사용되었던 디테일을 여성복에 변형시킴으로써 관능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웨스트우드는 그녀의 컬렉션에 18세기의 복식을 어느 시대 보다도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로코코스타일은 18세기를 대변하는 스타일로 의상뿐아니라 회화에 있어서도 로코코화풍이 생길 정도로 당대사의 문화적인 면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스타일이다. 웨스트우드는 로코코화가들의 그림속에 표현되어 있는 18세기의 복식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따 오고 있다(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1991).

Fig 6은 부쉐가 그린 전형적인 로코코스타일의 의상으로 데콜레와 코르셋으로 가늘어진 허리, 빠니에(Panier: 철사, 등나무, 고래수염등으로 만든 18세기의 skirt 버팀대)로 인해 부풀려진 스커트의 모습을 볼 수 있다(Fig 12). 이러한 요소들은 웨스트우드의 최근 의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특징들로 Fig 8과 Fig 9에서는 깊게 파인 데콜레를 볼수 있으며, Fig 3에서는 코르셋을 겹옷화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7에서 보여지는 옷은 18세기말의 르댕고뜨를 20세기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화려한 악세사리와 광택있는 소재의 이용은 화려하면서도 극히 여성스러운 로코코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웨스트우드는 이렇게 회화속에 있는 복식을 표현했을 뿐아니라 회화자체를 프린트로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Fig 9, 11은 부쉐나 프라고나르의 그림이 프린트된 소재를 사용하여 로코코 회화의 낭만적인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가재창 1995).

이외에도 콜렉션의 주제를 와토의 그림인 '시페르섬에의 출범(voyage à cythère)'으로 할 정도로 와토의 회화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Fig 15의 옷은 Fig 14의 와토 회화에서 보여지는 복식을 변형한 웨스트우드의 최근 콜렉션이다. 18세기의 남성복은 Fig 14와 같이 겹옷인 쥐스포코르(Justaucorps)와 조끼(Veste), 팔로뜨(Culotte)로 이루어졌는데 쥐스포코르의 넓은 cuffs와 화려하게 수 놓인 앞면, 촘촘한 단추와 곡선진 silhouette이 웨스트우드의 의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여성복뿐아니라 남성복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1981년의 해적콜렉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Fig 13). 이 쇼는 그녀가 지금까지 행한 역사적 리바이벌리즘의 시초로 18세기 남성복으로 부터 영감을 얻어 영국의 대양을 항해하는 약탈자들을 낭만적으로 묘사했으며 약탈한 귀족들의 의상을 되는데로 주위 입을 해적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가재창 1995: Valerie 1991).

86년 웨스트우드는 미니크리니(Mini-Crini)콜렉션으로 파리에 돌아오게 된다(Fig 17). 이것은 가벼운 플라스틱 후프(hoop)로 지탱되는 중 모양의 스커트로 착용자

가 앉음에 따라 접혀지기도 한다. 또한 스커트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되었으며 움직일때마다 흔들려 다리가 드러나 보이도록 하고 있다. 미니크리니는 역사상 가장 스커트 둘레가 넓었던 크리놀린(Crinoline)스타일을 변형한 것으로써 현대에 맞게 길이와 폭을 적당히 줄인 웨스트우드의 워트가 돋보인다.

환상적인 스타일로 상업적으로 재생산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크리놀린을 그녀는 과감히 도입하였던 것이다(Valerie 1991). 그외 Fig 19의 미니버슬(Mini-Bustle)스타일에서는 체크와 같은 영국의 전통소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Fig 21의 S자 스타일에서는 실루엣뿐 아니라 모자인 악세사리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다양함을 알수 있다.

## 2) 내적 상징성

웨스트우드는 현대의상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코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파격적이고 과감한 스타일들은 진부한 사고방식에 대한 염증과 그녀의 외고집을 대변하고 있다. 웨스트우드는 자신의 옷에 관한 신조를 WWD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패션을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 예를들면 정치나 거리의 젊은이들 같은 것에 연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패션은 감동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느끼고자 하는 것을 입고 싶어한다"(Valerie 1991).

그녀는 또한 소재는 육체를 표현하기위해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웨스트우드 브랜드의 로고는 그녀의 창조적인 디자인 방식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Fig 22의 구와 위성은 바로 전통적인 무엇인가를 취해 현재에 맞게 바꾸어 놓는다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의미하고 있다(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1991).

이처럼 그녀는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과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과거의 답습이 아닌 변조로 기존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출하고 있다. 그녀는 항상 대담한 방법의 컷팅(cutting)과 셰이핑(shaping), 또한 새로운 색상, 텍스처(texture), 패턴의 혼합으로 혁명적인 스타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내면에는 사회에 대한 도전과



Fig 2. Henri VIII, 1539,  
A history of  
Fashion, p.151



Fig 3. Westwood's 91/92 A/W,  
Best Designers, p.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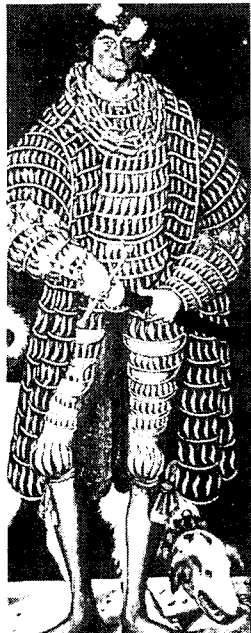


Fig 4. Duc de Saxe,  
Lucas Cranach, 1514,  
Le monde selon ses  
Createurs, p.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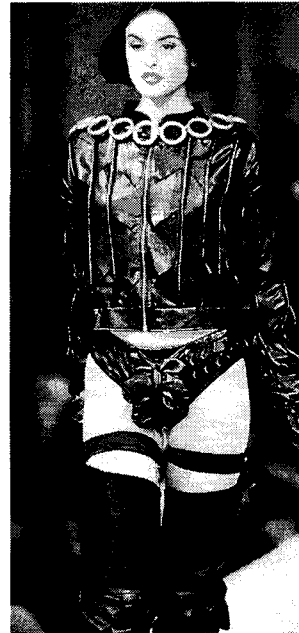


Fig 5. Westwood's 91/92  
A/W, Best Designers,  
p. 70



Fig 6. Rococo style, Boucher, 1777.  
A history of Fashion, p. 203



Fig 7. Westwood's 97/98 A/W.  
Dépeche Mode No. 111, p. 138



Fig 8. Westwood's 98 S/S,  
Collections, p. 13



Fig 9. Westwood's 92 S/S,  
Fashion Designers  
199, p. 50





Fig 10. Pastoral Music,  
François Boucher, 1743



Fig 11. Westwood's 90/91 A/W,  
Fashion Designers 199,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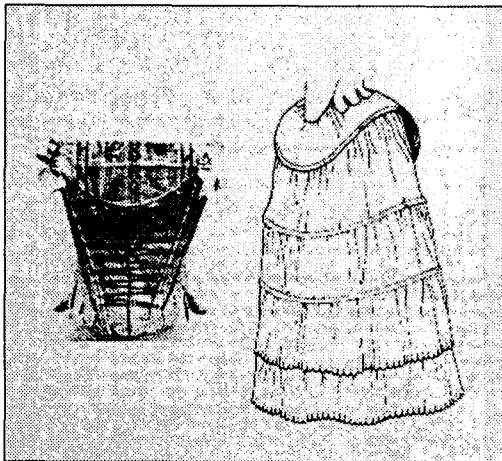


Fig 12. 18C의 Corset과 Panier,  
A history of Fashion, p. 201



Fig 13. Westwood's Pirates  
Collection, 81/82  
A/W, Street Style,  
p. 29



Fig 14. Portrait Dit de Jean De Jullienne, Jean A. Watteau, 1716 Watteau, p. 19



Fig 15. Westwood's 'Vive la Cocotte', 95/96 A/W, Dictionary of Fashion & Fashion Designers, p. 256



Fig 16. Crinoline 위에 Skirt를 입는 광경. 1865, A history of Fashion, p. 264



Fig 17. Westwood's Mini-Crini, 86 S/S, Street Style, p. 36



Fig 18. Bustle style,  
Jules James Roudgeron, 1877



Fig 19. Westwood's  
Mini-Bustle,  
Fashion  
Designers 199, p. 47



Fig 20. S-curve silhouette, 1906,  
History of 20C Fashion, p. 10



Fig 21. Westwood's 96/97  
A/W, Collections,  
p. 18

함께 권위에 대한 조롱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녀의 대부분의 관능적인 디자인들은 주요 테마인 섹스(sex)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웨스트우드 작품의 역사적 특징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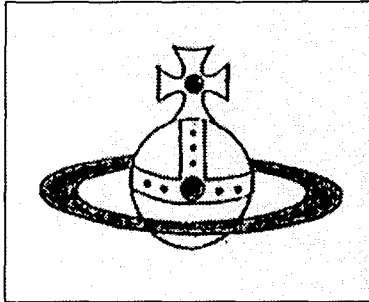


Fig 22. Westwood's Logo, Le monde selon ses Createurs, p. 79

#### IV. 결 론

근세의 르네상스시대를 접어들면서 인본주의(人本主義) 사상을 바탕으로 복식은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여 인간의 육체미를 과장되게 표현하게 되었고 17.

18세기를 거쳐 산업과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복식의 화려함도 차츰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로코코시대라 불리는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의상이 유행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과거의 복식스타일과 그 당시의 회화가 현대의상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보기위한 것으로 비비엔 웨스트우드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웨스트우드의 의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되는 르네상스 이후의 복식의 흐름과 회화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를 조사함으로써 그녀의 작품속에 나타난 과거의 특징들을 외형적 특성과 내적 상징성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웨스트우드의 작품속에 나타난 역사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대별로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로코코 스타일, 19세기의 크리놀린, 버슬, S자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식의 특징들이 보여졌으며 둘째, 외형적으로는 실루엣, 디테일, 복식의 아이템, 소재등의 방법으로 과거의 복식을 표현하고 있었다. 셋째, 회화로는 주로 18세기의 로코코 회화가 많이 보여졌는데 표현 방식으로는 회화속의 복식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림자체를 프린트로 이용하고 있었다. 넷째,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입체재단

〈표 1〉 웨스트우드 의상에 나타난 역사적 특징

시 대		16 C	18 C	19 C		
		르네상스	로 코 코	크리놀린	버 슬	S자 스타일
외 형 적 특 성	Silhouette			mini-crini	mini-bustle	s字 silhouette
	디 테 일	codpiece ruff collar slash	속옷의 길옷화 (corset) décolleté panier	petticoat		
	복 식 아 이 템		redingote justaucorps robe cullote	skirt		jacket skirt
	소 재	로코코 회화 프린트, check, 화려한 색상의 직물				
	재단방법	입체 재단, 과감한 cutting, shaping				
내적상징		sex, 권위에 대한 조롱, 도전				

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담한 컷팅과 슬래쉬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이들 작품들이 상징하는 바는 웨스트우드 브랜드의 로고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복식을 유머러스하게 변형함으로써 권위에 대한 조롱, 기존사회에 대한 도전 그리고 sex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통해 웨스트우드는 전통을 이용하되 그대로의 답습이 아닌 나름대로의 비판적 시각으로 변형, 20세기에 맞게 조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가재창(1995). 패션디자이너 199(1). pp.39-50, 정은 도서, 서울.
2. 신상옥(1998). 서양복식사. 수학사, 서울.
3. 이 일(1989). 서양의 미술(18), 와토, 서문당, 서울.
4. 이현아(1998). 해체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Vivienne Westwood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5. 정홍숙(1989).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서울.
6. 정홍숙(1991). 복식문화사-서양복식사-. 교문사, 서울.
7. Catherine Modermott(1988). Street style-British Design in the 80s-. pp.23-49, The design council, London.
8. E.H. Gombrich., 최민(역)(1988). 서양미술사. 열화당,

서울.

9. Florence Müller, Yvonne Deslandres(1986). Histoire de la mode au XXe siecle. SOMOGY, Paris.
10. Georgina O'Hara Callan(1998). Dictionary of Fashion & Fashion Designers. pp.204-205, pp.256-259, The Thames and Hudson, New York.
11. Harriet Quick(1997). Défilés de Mode. pp.130-155, Editions Soline, Paris.
12. Jane Mulvagh(1988). Vogue-History of 20C Fashion-Viking, London.
13. Jean-Louis Pradel(1983). La Peinture française. pp.130-277, Le Robert, Paris.
14. 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1991). Le monde selon ses createurs, pp.70-79, Paris Musées, Paris.
15. Peter Dormer(1991).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20C designers, pp.239-240, Publishing PLC.
16. Ted Polhemus(1994). Street style. pp.89-103, Thames and Hudson, New York.
17. Valerie Steele(1991). Women of fashion-Twentieth Century Designers-Rizzoli, New York.
18. Best Designers(1991). Gap Japan, Tokyo.
19. Collections(1996). Gap Japan, Tokyo.
20. Collections(1997). Gap Japan, Tokyo.
21. Dépeche Mode(1997). No. 111. Septembre.